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도민중심’으로

###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의견 반영

#### 운영비 인상 등 개선키로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84개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준 경비 현실화’ 등을 주문한데 따른 것.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97%는 ‘단체운영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59.3%는 ‘기준 보조율이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41.8%가 ‘계획사업 대비 보조금 신청액 조정으로 당초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애로사항으로는 ▲민간보조시스템 활용

어려움 ▲기준경비 현실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현행 70~90%인 취약계층지원사업 보조율을 90%~정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동결됐던 운영비도 물가상승률 적용 인상지원과 함께 동일단체 지원 기준을 통일한다.

또 사업유형을 당초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다양화하는 한편 매년 1월 2~20일이었던 심의기간을 조정해 전년도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0일로 조정했다. 사업계획 변경도 20%이내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당초 무제한이었던 신청 사업수도

1단체 2사업으로 조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1.1% 증가한 29억4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조금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11월 18~12월 13일까지 신청서류 적격성 및 사업을 검토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는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1월 9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및 결정액을 통보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업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개선된 내용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과 수혜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계획사업이 사업시기를 잃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결정을 조기 완료해 사회단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도 사회복지협의회, 우근민 지사 초청 간담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지난달 15일 하니크라온 호텔 별관에서 우근민 도지사를 초청, 사회복지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데 사회복지인들이 함께해 달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인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위원 위촉장 수여

4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에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장이 선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3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상오 제주시장과 전영록 공동대표위원장이 참석해 보건, 복지, 학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부위원장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의 김성건 부장이 선출됐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문제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해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

계망 구축, 자원발굴·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자 2007년 10월 최초 구성 운영돼 왔다.

### 지면소개

- 사회복지소식 ..... 2·3면  
전도수화경연대회, 명지어린이집팀 대상 은빛어르신한마당 잔치 개최
- 특집 ..... 4·5면  
2013년 제주나눔대축제
- 오피니언 ..... 6면  
칼럼·시론·기고
- 오피니언 ..... 7면  
참여, 소통 그리고 함께 그리는 제주 미래 150인 원탁회의
- 기획 ..... 8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7)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3

## 도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례관리학회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한국사례관리학회(회장 김성천)는 지난달 21일 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사례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제주사회복지기관(시설)의 사례관리 전문화를 위해 컨설팅, 학술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11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2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 시설·단체명                | 행사명                         | 주요내용                                    | 일시·장소                                                                                           | 문의       |
|-----------------------|-----------------------------|-----------------------------------------|-------------------------------------------------------------------------------------------------|----------|
| 제주애덕의집                | 그룹홈·체험홈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4차 정기교육 | 그룹홈 실무교육<br>- 인천 장봉혜림원 그룹홈 지원센터 이상란 센터장 | 19일(화) 13:00 ~ 16:00<br>제주애덕의집 지하 교육실                                                           | 724-8101 |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우리 가족을 위한 행복씨앗 프로젝트         | 관계형성을 위한 상담워크숍                          | 매주 목요일 오전9:30~12시:30/무료/<br>센터 3층 교육장                                                           | 722-9004 |
|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br>제주시지부 | 수화프리즘-4분기 수화교실 교육일정         | 수화 초급·중급·고급반 개설                         | 10월1(화)~12월12일(목) 3개월(총20회)<br>19시~20시/주2회(화,목)/제주시지부 교육장<br>(탐라장애인복지관 3층)/<br>수강료3만원~5만원(책값별도) | 757-2120 |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2013 어시스터 문화예술연수사업          | 강연을 통한 이론적 기초지식 습득,<br>문화예술현장 견학 및 체험 등 | 5~6일/10:00~17:00<br>제주문화예술재단 회의실 및 현장/무료                                                        | 702-3784 |
|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전문화 교육      |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 페러다임과 실천전략            | 4일(월)/14:00~16:00/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br>5일(화)/14:00~16:00/제주웰컴센터                                       |          |
|                       |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 직장조직 사회에서의 갈등 관리 및 스트레스 다스리기            | 22일(금) 10:00~ 16:00 협의회 2층 삼다수홀                                                                 |          |

## 전도수화경연대회, 명지어린이집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회장 박춘근)는 지난달 14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통통통통! 소통을 디자인하

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제 16회 전도수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열린 이날 대회는 15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해 노래,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수화공연으로 아름다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이번 대회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가했다. 특히 도의회 공무원팀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서귀포온성학교 교사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명지어린이집 팀이 차지했으며, 한라지역아동센터 ‘희망’ 팀이 금상을, 중문고등학교 ‘무한도전’ 팀이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 아가의 집 가을맞이 나들이 진행



혜정원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12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아가의 집 이용자 38명과 교사 22명, 봉사자 10명과 함께 가을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있는 상жат성 오름숲길을 탐방했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는 간단한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어르신과 함께한 서커스 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제주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소는 지난달 10일 피해학대 어르신들과 함께 서귀포 지역으로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나 답소도 나누고 서커스 구경을 하며 옛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돌또기’ 공연 상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지난 9월 27일 자파리연구소를 초대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을 실시했다.

구좌지역 아동 및 주민들 80여 명을 초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창작인형극 오돌또기를 감상하며 문화공연을 만끽했다.

지난 5월 ‘죽 쑨는 할망’ 공연으로 복지관을 찾은 자파리연구소는 “관객들의 열정과 호응 덕분에 즐겁게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내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 아쿠아플라넷 나들이

내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원장 현갑열)은 제주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지부 부설 행복동지 지적장애인 그룹홈 등과 함께 아쿠아플라넷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지적장애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어르신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접하기 위해 진행했다.

## 엘린, 장애인근로자와 ‘문화산책’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엘린(원장 한봉금)은 지난달 12일 장애인근로자와 훈련생 등 44명과 함께 아홉굿마을 의자공원 관람과 제5회 웃뜨리축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근로자들은 함께 의자공원을 둘러보며 의자에 새긴 의미있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공원 주변산책길을 따라 걷기도 했으며,



축제에 참가해 음악공연과 보리피자 만들기 체험 등을 하며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직원 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작은세상봉사단 어르신과 가을 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단장 박형수)은 지난달 20일 성이시돌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도내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해군 615비행대대 장병들도 함께했다.

이 단체는 26년간 매월 2회 이상 시설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추자도 방문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지난달 22일 추자면 대서리와 예초리 등을 방문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용 클러치 락과 지팡이 락을 무료로 교체했으며, 전동스쿠터 스텝세척 등을 실시했다. 센터 측은 추자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12월에 재방문할 예정이며, 연간 2~3회 정기 서비스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판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 한우협회 제주도지부 푸드마켓에 1천만원 상당 한우 기탁

한우협회 제주도지부(지회장 김맹종)는 지난달 21일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해달라며 1천만 원 상당의 한우를 기탁했다.

이 한우는 지난달 16일 열린 2013 제주나눔대축제에서 기부식품전달식을 통해 약속한 기부를 실천한 것.

푸드마켓은 이번에 기탁받은



360인분의 한우를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창수)는 서귀포중앙로타리클럽(회장 장은술)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저소득층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귀포중앙로타리클럽 내 각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회원가족 30여 명과 플러스하트자원봉사단, 군부대의 봉사활동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장애를 입은 가정을 방문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섬마을 선생님 재능나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는 가파도노인회관과 가파초등학교를 방문해 의료서비스와 이·미용 서비스, 민요공연과 상담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제주노인복지병원과 신라면세점, 한울간병봉사회, 김신옥 예술단, 어우렛적십자봉사회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 제주시장배 장애인볼링대회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은 지난달 11일 제주시 에이스볼링장에서 제12회 제주시장배 장애인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자원봉사자 등 2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신 신장장애인 부문으로 실시한 결과 총 42명이 입상했다.

##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 개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지난달 24일 한림체육관서 제 11회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서부지역 노인 1000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각 경로당

에서 배운 취미와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익히고 배운 솜씨를 발휘해 노년기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관장은 “이번행사가 노인들에게 이웃사랑의 정을 전달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이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경로잔치가 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지원 및 참여가 절실한만큼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KT제주고객본부

#### 푸드마켓에 성금 300만원 기탁

KT제주고객본부(본부장 정준수)는 지난달 17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할 물품 구입비로 써달라고 푸드마켓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지난달 5일 열린 2013 제주나눔대축제에서 나눔실천 협약식을 통해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정기후원 약속을 실천한 것.

푸드마켓은 이 성금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 구입비에 사용할 예정이다.



### 제주장애인부모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지난달 18일 제주벤처마루에서 한국장애인재단 특별기획사업 ‘장애인 권리, 바로알고 실천하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교육’ 8개 권역별 전국 순회교육 중 제주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분야 종사자 1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교육을 통해 제주지역 참여자들의 장애인권감수성 향상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 친환경제품 판매장 ‘자연이다’ 오픈

서귀포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이다’ 사업장을 오픈했다.

서귀포시 서홍동 홈플러스 맞은편 일호지어빌 상가에 문을 연 자연이다 매장은 건강한 먹거리와 쓸거리를 공급하는 독자 개발 브랜드 1호점으로 취약계층이 만든 생선제품과 사회적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수 제작한 상품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서귀포시지역자활센터 임



철남 센터장은 오픈식에서 “자연이다는 함께 모여 잘 사는 가게다. 착한 소비를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 말했다.

## 순복음복지관,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10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회천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의 열악한 보금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배 및 장판, 전기, 청소를 실시했다.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조영숙 관장은 “지역 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북



돋아 주고, 함께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드리고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어린이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거문오름 블랙푸드 육성사업단(단장 김상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에게 지난달 22일 도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거문오름 블랙푸드 육성사업단은 지난달 18~20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린 거문오름 휴휴페스티벌에 참가해 오메기떡 체험, 품평회, 오디와인 품평회 등을 진행하며 제주에 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함을 설치해 후원을 유도했다.



김상수 거문오름 블랙푸드 육성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이 도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좌어린이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실시



지난달 12일 구좌읍동녘도서관에서 구좌어린이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제주시거점지역아동센터가 주최하고, 해바라기 우리하도 종달지역아동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즐거운 토요일을 만들자는

취지로 구좌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 공동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주회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의 관객은 “아이들이 준비한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가 주과 마을에 마을축제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제주춘강의원

#### 중증장애인 문화탐방 실시

제주춘강의원은 중증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40여 명과 함께 도내 문화탐방 및 자연탐방을 진행했다.

춘강의원은 “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주지역 문화, 자연탐방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봉아름지역아동센터

#### 나눔대축제서 재능기부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지난달 5일 2013 제주나눔대축제에 참가해 재능기부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노래실력을 참가자들에게 뽐낼 수 있었던 소중한 재능 나눔시간이 됐다.

##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제주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봉금)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 신체장애인복지회

#### 사랑의 끈 잇기 행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한정효)가 주관하는 제3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행사가 지난달 24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지도



층 인사를 장애인 학생 후견인 결연으로 진행 됐다.

## ‘혼디 모이난 춤말로 좋수다’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달 12일 이용자와 가족, 직원이 함께한 2013년 해늘이의 가을나들이 ‘혼디 모이난 춤말로 좋수다’를 진행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가을나들이는 가족의 정과 친밀함을 형성하고, 이용자와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 및 지속적인 참여



를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 2013년 제주나눔대축제

## 나눔은 제주를 키워가는 힘입니다



2013 Jeju Sharing Festival

‘나눔과 화합의 한마당’ 2013 제주 나눔대축제가 지난달 5~6일까지 제주시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제주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시니어클럽, 제주 수능음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제주생태관광, 아름다운 가게, 돌하르방 공원을 비롯한 지역 업체 등 80여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또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 소속 제주행복기자단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축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으며, 일배움터 산하 플로베카페는 나눔대축제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개막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회장은 “나눔은 우리 제주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정

신”이라며, “축제를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공자 시상 및 나눔실천 서약 등이 이어졌으며, 고·사·리 청소년 재능나눔 한마당과 제주유나이티드 FC 팬 사인회, 스포츠 재능기부, 재능기부 열린 무대 순으로 진행됐다.

메인무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을 비롯해 피리공연, 마술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됐다. 그 중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들의 사인볼 선물, 팬 사인회에 이어 강원도와의 경기티켓도 무료로 제공해 축구팬들과 어린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나눔대축제에 참가한 이은정(32·이도2동)씨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해 놀랐다”며 “아기자기한 체험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재밌었고,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공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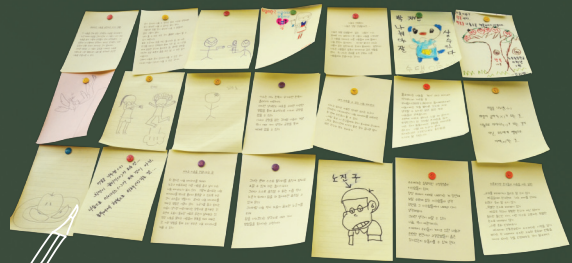
〈나눔 대축제 SNS운영본부 운영단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행복기자단2기 강순영 기자〉



▲방기성 행정부지사, 방문추 도의회 부의장, 도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회장 등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나눔에 대한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다.



# 제주 나눔 대축제 행사장 모습들~



나의 나눔 이야기를 적어요~



선생님이랑 나랑~ 조물조물~



FC선수들의 재능기부



자~ 김치!!! 나눔 포토존에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재능나눔 부스에서 재미있는 양초 만들기



맛있는 문어빵 나눠 드립니다~



고·사·리 청소년 재능 나눔 한마당 밴드공연 중



아~아~  
여기는 KBS 제주 나눔대축제 생방송 현장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장애인 체험



나만의 버튼 목걸이 만들어요~



심폐소생술도 가르쳐 드려요!



골라! 골라! 없는 거 빼고 온딱~ 다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같이 만들어요~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희망나눔 우체통



쿵딱! 쿵쿵딱!



## 칼럼

##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길웅  
수필가·시인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갖은 노력을 쏟는다. 장애 유형별로 교육 훈련하고 재활치료에 나서고 있음은 물론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들테면 ‘춘강’의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센터가 구체적인 그 실천의 장(場)이다. 세탁, 사무용지 채단, 갈옷 천 만들기, 된장 간장 제과류 등 갖가지 식품개발 제조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거둬 그 수익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문학을 통해 자립하는 이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연년이 그리기대회와 문예백일장, 기타 예능교실 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도 매우 뜻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기회가 닿아 그곳 근로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몸이 온전

치 못한 그들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들은 장애라는 벽에 부딪쳐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의지가 견고했다. 그리고 용맹했다. 준비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땀 흘리는 그들, 장애를 무릅쓰고 몸을 던져 가며 일하는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이동한)이 지향하는 철학이 있다. “지성을 다해 지역의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참여의 역할을 돕는다”는 것. ‘재활’이 키워드다. 춘강의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실천, 그 향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춘강’은 영원히 ‘없는 자, 약한 자의 이웃’으로 장애인을 깊이 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자그마치 그것은 밖에서 바라보는 신뢰의 시선이기도 하다.

‘춘강’에 장애인문학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올해로 10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대로, 그새 12명의 문인(수필가10, 시인2)을 중앙문단에 배출했다.

최근 들어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진다. 세 분의 신인상 등단에 법인이 지원해 나선 것. 중앙에 등단하려면 신인상 당선작이 실린 잡지를 사야 하는 관행 때문에 재정 여건이 되자 않으면 등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이동한 이사장과

윤보철 관장이 그들의 등단을 차례로 뒷바라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 등 세 분이 그렇게 소망하던 통과의를 거치게 됐다. 시인 수필가로 등단해 중앙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 중앙무대 등단, ‘감격’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강의가 열리던 날, 등단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한 이 이사장, 윤 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단출한 축하의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사장과 관장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수필가로 등단한 한복섭 작가의 등단작 ‘아내의 생일’에서 받은 감동의 여운이었다. 이순을 넘은 작가가 아내 생일날 마주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한 뒤, 짜장면을 먹는 작품 속의 장면 묘사는 눈물겨웠다.

가진 게 없는 그가 아내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라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도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킨 짜장면이다.

글방 분위기가 숙연했다. 아마 이런 따뜻한 손길이 있어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오래 이어질 것이고, 회원들은 좋은 글로 ‘춘강’에 보답하리라.

전국 어디에 이런 훈훈한 글방이 있을까. ‘춘강’이 키운 12명 문인이 자랑스럽다.

## 시론

## 자치·분권과 복지 설계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서울시가 결국 고심 끝에 2000억원의 빚을 지며 무상보육재정을 메꿨다. 서울시는 이번 지방채 발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할 경우 지방공간이 뿌리 채 흔들릴 것이라 우려하였다. 분담률이 50%인 제주의 경우 올해는 무탈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살펴 볼 일인데 제주도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매우 가파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제주도예산은 2조 3천억원 규모에서 3조 3천억원 규모로 약 45% 증가한데 반해, 복지예산은 3천 5백억원 규모에서 6천 8백억원 규모로 94%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배에 이른다.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국 평균의 53.2%의 절반 수준이며 채무액도 1조 4천억원 규모로 도 재정의 40%선을 넘어선다.

제주도의 복지재정은 20% 정도인데 수급비용과 같은 자연증가분의 지방부담도 지금의 국고지원으로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2006년 도입된 포괄적 보조금 형식의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실제적 자치 구현하고 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았고 전략의 일환으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인데 특히 복지 분야는 정부부처 사업 중 가장 많은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현재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11.8%에 머문 반면, 대응지방비는 13%로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같은 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에 의한 제주발전 모델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자치·분권모델이다. 특별법에서는 매년 4천억 원 규모의 국세를 제주에 이양하도록 국가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 없이 사문화되어 재정자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사회복지관 점에서 자치·분권은 “재정자주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주민주체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삶(복지)을 변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분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강화는 ‘복지국가책임주의’를 지역으로 회피시키는 도구로 기능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신연방 보수주의 정권인 닉슨과 레이건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주정부 복지정책 불개입 원칙하에 분권정책을 복지국가 축소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보육재정 확보책임과 관련한 서울시와 정부 간 충돌은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으로 국가복지책임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분권의 강화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대로 발현된 자치·분권의 강화는 지역간 혹은 지역내 격차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보충성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사회가 공간적으로 작다고 하지만 지역별 특성이 있고 산남·산북, 도시·농촌 간 교육, 일자리, 보육과 양육, 의료 등 부정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줄이는 복지기제는 ‘보편성’과 ‘보충성’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는데 복지국가책임주의를 보편성이라 할 때 자치·분권의 강화는 지역특성이 포함된 보충된 욕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그릇을 담아내는 수단으로 bottom-up 복지사업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 세력이 복지의제를 독점하고 정책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bottom-up 복지사업은 이를 차단함은 물론 자치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 번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와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각각의 숙의(熟議)형 원탁토론은 bottom-up방식으로 복지를 설계한 좋은 예이다.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성숙한 발현은 지역복지를 재설계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다.

## 기고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시나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송성산  
제주여성가족과

공직에 몸담은 지 일 년이 안되는 새내기 공무원으로 제주 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업무를 맡으면서 두근두근하고 졸깃한 공직 생활이 시작되었다.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의 전 계층 확대 첫 해’에 보육 업무를 맡아 공무원이 된 것은 운명 같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다.

연초에 비해 이제는 보육료↔양육수당 서비스 변경신청 건에

대한 문의전화가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영유아 0~5세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질문 0순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보내는데 보육료는 언제부터 지원되죠?” 정답은 “서비스 변경신청일에 따라 달라요~”이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원하는 시기에 변경을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같은 달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1~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면, 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지원받는다.

반면, 16일 이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면 해당월은 양육수당을 받게 되고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받는다. 만약, 해당월에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어

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다닌 일수만큼은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보육료↔양육수당 간 서비스 변경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모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서 이 트(www.bokjiro.go.kr)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 3월부터 전 계층 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민원인 전화응대, 영유아복지 신청 서비스 확인과 책정으로 정신없었던 2월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불과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시책을 민원인의 시각에서 보았다면 지금은 민원인과 공무원, 그 경계에서 보게 된다. 그 경계선상에서 치열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연초에 비해 이제는 심적,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고 성장한 내 자신에게 뿌듯하다.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 ‘참여, 소통 그리고 함께 그리는 제주 미래’ 150인 원탁회의

##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미래의 가치는?



▲제주복지공동체포럼은 지난달 17일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제주도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공동체 조성위한 제주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15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의원 박규현)은 지난달 17일 제주시 그랜드호텔 크리스탈 홀에서 제주도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공동체 조성위한 제주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15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복지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150명과 토론진행을 위한 20여 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참가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정해진 의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원탁회의는 ▲제주도민의 2013 행복도 진단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의 미래 가치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토론을 위한 키워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4월 25일~5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주도민의 주관적 행복체감도 수준’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귀포시 주민(49.69점)

이 제주시 주민(48.44점)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답했

으나 도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48.8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연환경 ▲도시환경 ▲교통 ▲치안 ▲교육 ▲문화 ▲건강 ▲복지 ▲경제 ▲행정 ▲주거 ▲지역참여여건 ▲가족생활 ▲직장 및 사회생활 ▲일상생활 ▲심리적 요인 등 16개 행복도 구성 요인 중 제주도민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자연환경’이었으며, ‘건강’을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제주도민의 2013년 행복도 진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주어진 키워드

는 ▲자연환경 ▲도시환경과 교통 ▲치안 ▲교육과 문화 ▲건강과 복지 ▲경제 ▲행정과 지역참여여건 ▲주거 등 총 8개. 10명씩 15개의 원탁에 앉은 참가자들은 각각 가장 큰 지역 현안을 놓고 상호 토론을 진행했다.

1시간가량의 토론 끝에 토론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의료 및 복지체계 미흡(41명, 30%)’이 선정됐으며 ‘정치갈등 및 행정편의주의(27명, 20%)’, ‘경제불평등과 외국자본 침투(24명, 18%)’도 개선포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토

드를 놓고 진행된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의 미래가치’를 정해보는 2부 토론회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제주’에 39명(30%)이 손을 들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했다.

이어 ‘시민의 참여와 행정협업(29명, 23%)’, ‘생애주기별 복지지원(21명, 16%)’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시민의 참여와 행정협업’ 항목은 당초 16%를 기록했으나 토론 후에는 23%로 급등해 ‘소통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거움을 나타냈다.

에 봉착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통을 강조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 의료나 복지, 문화 등 도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들은 도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도가 ‘도민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걸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원탁회의라는 방식의 토론을 차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토론문화만 정착하면 많은 갈등들이 없어질 것이고 도민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한다. 원탁회의는 이런 토론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라며 “이 자리서 나온 의견들이 전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일반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내용을 적어도 도의회와 공무원들은 정책 입안과정에서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공동체 조성위한 제주미래가치’ 원탁회의 개최

#### 의료 및 복지체계 미흡...청소년 정책 갈망 나타나

론 전반 하더라도 ‘교육과 문화의 낮은 경쟁력과 자원편중’이 22%를 차지했으나 토론 후 14%로 떨어졌으며, ‘관광도시가 무색한 대중교통 편의성’도 18%에 이르렀으나 토론 후에는 13%로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생활습관병의 체계적 관리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마을에 일터 만들기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로 마을에 일터 만들기 △제주형 민생치안시스템 △도민문화촌 조성 △문화동아리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 제주 △스마트전자정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행정 협업 등 9개 키워

이번 원탁회의를 진행한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박주희 의원은 “최근 제주가 사회통합 위기



##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7)

## 제주를 사랑하는 착한 가게, 애월 슬로비를 가다



▲몽생이 기자단은 지역어르신이 재배한 작물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슬로비를 찾았다.

가을바람 살랑대는 완전한 11월.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11월 몽생이 기자단에서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운영하고 제주의 로컬 푸드를 고집하며 지역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애월에 위치한 “슬로비”를 찾아갔습니다.

이곳 “슬로비”는 요리로 사람을 키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서울 홍대에 처음 생긴 이후 제주 애월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는데, 이 비영리 맛집의 기원은 서울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인 ‘하자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대학 보다는 직업을 찾아 자립하려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하자센터 몇몇 멤버들이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레스토랑 창업하기의 프로젝트로 바로 “슬로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슬로비는 청년레스토

랑 1호점인데요, 이곳은 영세프 출신 노아름(21)씨가 사장을 맡아 제주지역경제를 위해 제주에서만 나는 식재료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월비빔밥, 제주돌빵, 한라산 미니스트리등 이름만 들어도 궁금증을 마구 일으키는 재미있는 요리 이름이 적힌 메뉴판이 맞이하고 있고 매장 곳곳 제주사투리로 쓰여진 재미있는 카드도 있어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 슬로비에서는 제주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한 독특한 로컬 요리를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제주내의 사회적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해 슬로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슬로비의 수익금은 다시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대안학교인 “영세프스쿨”에 후원금으로도 쓰여지고, 애월에서 할머니들이 손질하는 식재료 등을 구입하여 만드는 착한 가게인데요, 맛은 당연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의 제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훈훈한 느낌이 절로 나는 레스토랑입니다.

사람향기, 제주향기 가득한 이곳으로 마음의 여유와 희의 행복을 위한 방문은 어떨까요?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③

## 채무를 상속받은 가정에 힘이 된 한정승인심판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A씨(남, 25세)의 부모님은 A씨가 어릴 때 이혼하여 A씨는 부친과 떨어져 모친과 단둘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 후로 A씨는 부친과는 왕래 없이 자라왔는데, 최근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부친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백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부친의 빚은 사망과 동시에 A씨와 모친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채권자들은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성실히 자라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빚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여기저기 물어보며 알아보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에 지역 신문 광고를 통해 법률홈닥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었음을 알게 되어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가 A씨와 면접 상담한 결과 당시는 부친이 사망한지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

점이었으므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법원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위 안내에 따라 A씨는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미리 발부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구조요청하였고, 상담 후 무료 법률구조 결정까지 받게 되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고, 채무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A씨는 다시 한 번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법적 책임과 함께 마음의 무거운 짐도 벗어날 수 있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 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대신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바로 청구기간이다. 이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어야 하고 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INFO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2013 함께하는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장애인보조기기 편의시설 관련)

**참가대상** 장애인부, 일반부, 학생부 (중학생 이상)  
\*제주도민에 한함.

**응모주제** 일상생활의 불편함 개선, 기존 장애인 보조기기 기능향상, 신규아이디어

**접수기간** 2013년 11월 18일(월) 18:00까지

**접수 및 문의처**  
- 인터넷접수 : 이메일 (odc1361@naver.com)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제주시 아라1동 396-1  
Tel. 702-0295~6 Fax. 702-0294  
http://www.jejuhab.or.kr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0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유기농채소 4kg ▲금강축산유통=육류 800kg  
▲김치원=김치 60kg ▲동원F&B제주=냉장·냉동식품 1476개  
▲빵띠아모=빵 18봉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412모 ▲이든이네=멸치 7.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45.5kg ▲제주보리촌=보리빵 997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5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330봉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 후원금수입     | 후원금사용액    |
|---------|-----------|-----------|
| 재가결연후원  | 2,190,000 | 2,190,000 |
| 난치병환아후원 | 40,000    | 0         |
| 자원봉사후원  | 545,000   | 545,000   |
| 복지사업후원  | 1,130,000 | 1,979,000 |
| 푸드마켓후원  | 2,970,000 | 197,000   |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